

# 우리 지역 예술가에게 배워요

## 전북문화관광재단, '모모의 옥상 클래스' 기획·추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도민과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 '모모의 옥상 클래스'를 기획·추진한다.

재단은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 기획사업의 목적으로 지난해 운영했던 '모모의 교육'에 이어서 올해도 예술인 재교육 사업을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진행한다.

1회차 교육은 재즈아티스트 김성수의 'Jazz Take it Easy'라는 주제로 피아니스트로서 삶과 예술적 철학을 연주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7월 5일 오후 6시에 진행한다.

2회차 교육은 미디어아티스트 송대규의 '예술

과 기술 사이, 그리고 예술과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예술과 문화사업의 경계를 오가며, 도전한 솔직한 경험과 단상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7월 12일 오후 6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두 번에 걸친 교육은 롯데백화점 전주점 옥상에서 진행하며 도내 예술인과 일반 도민의 사전 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의 테마는 '우리 지역 예술가에게서 배운다'라는 콘셉트로 지역 내 특별한 장르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가 교육을 선보인다. 특히 예술가 재교육 과정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일방적 강의형 교육이 아닌 예술가 간의 소통형

교육으로 구성하기 위해 교육장소를 롯데백화점 옥상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에 마련했다.

도내 역량 있는 예술가와의 이번 만남이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예술적 영감과 함께 지역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계기이며 일반 도민에게는 이색적 문화향유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사업팀 임진아팀장은 "타 지역 작가에게서 듣는 외부 사례가 아닌 이 지역 전북의 아티스트와 그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하기로 했다"며, "초여름 저녁 사람, 이야기, 예술, 낭만, 감동, 여운이 있는 모모의 옥상클래스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www.jbaw.or.kr)와 문화사업팀(063-290-7449)에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제11회 전국매창후회대회 및 시상식이 지난날 29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됐다.

## 조선시대 여류 시인 이매창의 예술혼 기리다

### 부안군, 전국매창후회대회 성료 한문부문 임지선씨 대상 수상

제11회 전국매창후회대회에서 한문부문 임지선(전북 전주시)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부안군은 조선시대 여류 시인 이매창을 기리는 제11회 전국매창후회대회 및 시상식이 지난날 29일 부안예술회관 다목적 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임지선씨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한국예총부안지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헌회부안지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서예·문인화가 60여명이 참가했다. 이매창은 1573년 조선 중엽의 대표 시인으로 당대 선비들과 교류하며 고향인 부안을 떠나지 않고 여류시인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문인이다.

대회 결과 한문부문 임지선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한문부문 박영옥(경기도 파주시)·한글부문 윤태희(강원도 춘천시)·문인화 부문 장정옥(전북 부안군)씨가

수상했다. 특선은 김중식(대전시)씨 외 9명, 장려상은 김주연(경기도 고양시)씨 외 19명, 입선은 구보원(충남 서천군)씨 외 24명이 선정됐다.

작품심사 결과에 따라 주어지는 작가 점수로는 대상 8점, 우수상 6점, 특선 3점, 장려상 2점, 입선 1점으로 총 20점이 되면 전국매창후회대회의 초대 작가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입상된 작품은 부안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도록은 전국에 배포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매창의 시문에 담겨있는 생생한 감정을 한 장의 화선지에 묵필로 담아낸 참가자들의 예술혼에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즐거운 판타지 세계 속으로

### 부안예술회관서 '살아있는 박물관' 15~17일 공연

부안군은 2019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획공연인 판타지댄스뮤지컬 '살아있는 박물관'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펼쳐진다고 3일 밝혔다.

판타지댄스뮤지컬 '살아있는 박물관'은 3일간 총 5회 공연되며 부안군 상주 예술단체인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단장 유수영)와 포스댄스컴퍼니(대표 오해룡)의 합동공연으로 이뤄진다.

공연의 즐거움은 샐러리맨 박씨의 판타지 박물관 체험기로 바뀐 샐러리맨 박씨가 우연히 박물관 공연티켓을 갖게 되고 과다 업무로 갸시한 공연을 관람하면서 환상처럼 살아난 박물관 속 작품들을 보고 자신이 여유 없는 뻘뻘한 인간이었다는 걸 느끼며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해답을 찾아간다는 내용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클래식을 가까이에서 직접 들으면서 댄스뮤지컬을 감상할 수 있는 3일간의 판타지 페스티벌 세계로 초대한다"며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오셔서 즐



거운 판타지 세계 속으로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공연 시작 30분 전에 선착순 무료(전체 관람가)로 입장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판타스틱 앨리스' 27일 공연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오는 27일 오후 3시 판타지댄스뮤지컬 '판타스틱 앨리스'를 부안예술회관에서 유료공연으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인 포스댄스컴퍼니가 창작한 작품이며, 특히 포스댄스컴퍼니(대표 오해룡)는 2016년부터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주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2017년 전국 공연장 상주단체 우수사례 선정, 2017년 천안흥타령 거리퍼레이드 대상, 2018년 일주디내막댄싱카니발 대상, 2019년 대구컬러풀 페스티벌 대상을 수상하게 되 한 실력 있는 단체로서 부안군민들에게 해마다 호두까기 인형, 판타스틱 아쿠아 등 판타지댄스뮤지컬 공연을 선사하고 있다.

판타스틱 스토리의 새로운 기대작 '판타스틱 앨리스'는 동화 원작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각색해 판타지 세상을 무용과 연기, 대형 고양이 세트 퍼포먼스 등으로 입체적이고 몰입감 높게 만든 작품으로 판타지를 통해 상상력의 한계가 무한하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고 색다른 문화를 관객에게 전달할 것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 우수공연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상주단체의 예술창작 역량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오셔서 즐거운 판타지 세계 속으로 빠져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울러 부안예술회관에서는 한국문화정보원으로부터 문화네트워크 무인발권기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 로비와 예술회관 사무실 1층 로비에 2대가 설치되어 시민운영 되고 있으며, 7월 8일부터 '판타스틱 앨리스' 유료공연(1,000원) 티켓에매 및 발권이 가능하다.

문화네트워크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만든 전국적 공연전시 티켓판매 및 예매수수료 없는 티켓에매플랫폼으로 문화포털을 통한 부안공연과 부안지역의 정보가 전국적으로 홍보가 가능해졌고 전국적 공연전시 티켓을 무인발권기에서 발권할 수 있게 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